

식민지 지배의 꽃과 칼, 일제 사진엽서 읽기의 풍요로움

서유리*

[서평] 최현식(2022), 『일제 사진엽서,
시와 이미지의 문화정치학』,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768쪽

1. 들어가며: 시간의 틈, 근대의 시공간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언제나 시간이 밀어내는 지속의 현재에서 과거를 새롭게 발견하는 순간을 체험하는 것이다. 과거의 사건들은 망각에 닫히고 무의미에 덮여 있다. 어느 현재, 누군가에게 과거의 이미지가 놀랍도록 낯설고 새롭게 다가오는 순간이 생겨난다. 거센 시간의 물살을 비집고, 과거가 번뜩이며 하나의 개시처럼 다가오는 순간이다. 역사의 연구자는 이 시간의 틈에 매혹된다. 그는 현재의 틈을 비집고 과거로 파고들어 가, 얇고 치밀하게 뭉쳐진 수천, 수만점의 중층적 시공간을 헤집어, 그것을 자신의 사고와 언어로 낚아 낸다. 역사의 사유는 세계의 과거에 대한 사유이다. 왜 과거일까. 시간의 운동이 낳은 현재는 뜻밖으로 과거와 너무나 다르고, 그 차이는 현재를 중지시키고 과거를 열어 보도록 유인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는 언제나 현재의 타자이다. 역사가는 현재의 시좌에서 틈을 비집고 과거를 향해 그물망 던져 낚아낸 사유의 조각들을 하나의 전시장에 재배치하여 상연한다. 그 드라마에는 시간의 주름을 열어내어 현재와는 다른 것을 보고 싶어하는 자의 충동이 담겨 있다. 이 충동을 매개하는 것은 때로 한 장의 사진이기도 하다.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한 장의 사진 이미지는 시선을 흡착하여 과거로 관람자를 빨아들인다. 사진 이미지는 돌아갈 수 없는 한순간을 동결하여 제시한다. 시간의 간극, 차이의 간극, 낯설과 새로움을 응축시킨 이미지에 시선을 두는 순간에, 과거는 현재의 틈을 비집고 관람자인 역사가의 머릿속에 접힌 주름들을 활짝 열어 낸다. 근대문학 연구자인 최현식 교수의 『일제 사진엽서, 시와 이미지의 문화정치학』은 일제강점기의 시공간을 중층으로 접어 넣은 수많은 이미지의 갈래들을 언어의 통로를 따라 여행한 문학적 기록이다. 책의 머리말은 10여 년 전 진주박물관을 방문하여 대면했던 한 장의 사진으로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인이 조선인 ‘백정’을 찍은 우생학적 기록사진이었다. 이후에 한강철교 사진과 조선민요가 찍힌 엽서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결국 이 보잘것 없는 낡은 이미지들이 서정주와 김수영의 시를 비롯한 근대 한국문학의 연구자이자 동시대 시문학 비평가를, 황국신민화의 시각적 규율 매체였던 사진엽서에 대한 연구로 이끌어갔다. 사진 이미지는 그런 매혹의 손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매혹일까? 이 책은 사진엽서 연구로 이끌어갔던 이미지의 매혹을 말하지는 않는다.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엄격하고 단호하게 이미지의 뒤를 캐는 작업이 수행된다. 곧 사진엽서의 제작자였던 일본 제국주의의 정치적 의도를 치밀하고 꼼꼼하게 짚어 내고, 지배 체제의 문학, 교육, 미술, 역사를 구성했던 담론과 연결시켜, 제국 문화정치학의 의도를 낱알이 읽어내는 글쓰기를 관철시키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미지와 만난 순간에, 저자는 이미지를 읽어 매고 있었던 격자, 제국의 시선 안에 생생하게 살아 숨 쉬고 있던 과거의 현실에 이끌리지 않았을까. 그 과거는 현재의 철저한 타자이며, 이미 알고 있으나 시각적으로는 낯설기에 지극히 새롭다. 그 낯설은 연구자가 괄호쳤거나 민족적 저항담론으로 되새겼던, 근대 문학의 배후인 식민지 현실에 대한 시각적 마주침에서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낯선 매혹을 따라가면서도, 그것을 생산한 통치 미학의 격자들을 하나하나 해체하는 분석을 냉철하게 수행했다. 그 비판과 해체의 과정을 거쳐서 찾아낸 것은,

끝내 식민지의 시공간을 견뎌 냈던 ‘거대한 뿌리’, 조선인 대중의 얼굴이다.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는 마음으로, 저자는 사진엽서에 박힌 식민주의적 왜곡 장치가 만든 가짜 얼굴들을 부지런히 씻어냈다. 이 책은 식민지 조선의 이미지와 만난 문학적 기록이자, 반식민주의를 향한 집요하고 끈질긴 씻김굿과 같은 저술이다.

2. 식민주의의 꽃과 칼, 일제 사진엽서 연구사

일본인들에게 사진엽서는 식민지 지배를 위한 노련한 선전 미디어이자 근대 관광 산업의 친근한 동반자였다. 개인이 찍은 한 장의 기록으로서 사진 그 자체는, 공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러나 엄청난 부수로 인쇄되어 도처를 연결시키는 우편 미디어와 결합되면서, 사진은 현실을 장식하는 ‘꽃’이자 현실을 마름질하는 ‘칼’이 될 수 있었다. 제국을 꿈꾸었던 초기부터, 일본은 사진과 엽서를 결합시켜 지배이념과 식민지학을 배급, 유포시키는데 기민했다. 실제로 일본은 사진에 매혹되었다. 심지어 사진가 후쿠하라 신조(福原信三)는 사진을 일본인의 ‘국민예술’로 삼자고 주장하기도 했다.¹ 문학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 시가 하이쿠처럼 사진 또한 간결하고 아름답게 대상을 포착하는 방편이니 이것을 일본 국민의 교양 예술로 삼아 학습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살펴본 사진엽서는 단지 관광상품이 아니라, 국민문학인 와카(和歌)와 국민미술인 사진을 결합시켜 완성시킨 제국의 공공적 예술 장치이자 미디어였다. 요컨대, 사진엽서야말로 제국의 예술문화 정치학의 심장에서 영토의 온몸으로 보내 순환시킨 식민주의 이념의 혈액이었다. 저자는 이를 폭넓게 수집, 탐사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정신적 핵심을 뚫어내고 식민지 문화정치학의 허상을 벗겨내려 했다.

1 鳥原学(2013), 『日本寫真史』(上), 中公新書, 2013, pp. 30-42.

일본인이 제작한 조선의 사진엽서는 풍성하고 다양하며 생생한 이미지로 인해서 한국의 근대를 다루는 여러 분과의 연구자들에게 적지않은 관심을 받았고, 저술과 전시에 활용되어 왔다.² 일차적으로는 건축, 의상, 풍속, 도시, 설비의 시각적 기록자료로 참고되었다. 기록자료로서의 활용의 수준을 넘어서, 손에 잡힐 듯 담아낸 사진 속 한국인들의 일상적 현실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독해 작업이 곧 시작되었다. 이미지 안에 원주민의 열등성을 포획하는 식민주의적 시선의 격자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되고 분석되었다.

이 분석은 미술사학, 인류학, 사진사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미술사에서는 정통적 순수미술의 범주를 넘어 대중매체로 시선을 넓히는 시각문화 연구의 패러다임이 마련되면서 사진엽서가 주목되었다. 여성주의와 탈식민주의적 시선으로 근대 기생의 사진엽서를 분석한 미술사학자 권행가의 연구는 이 분야의 시원적 작업이다.³ 인류학자 권혁희는 식민주의와 함께 태동한 근대 인류학이 수행했던 원주민에 대한 타자화와 대상화의 학지적 폭력을 드러내는 시각장치로서 조선인의 풍속을 촬영한 사진엽서를 분석했다.⁴ 사진사 연구자 이경민은 관광지로서의 장소와 성애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이미지를 향유하고 소비하는 사진엽서에 주목하면서 이미지가 일상과 결합되는 근대성의 양상을 추적했다.⁵ 이 선행 연구들은 근대기 사진엽서 연구의 핵심적인 방법을 어느 정도 정립했는데, 그것은 근대적 시

-
- 2 현재까지 발행된 자료집으로 대표적인 것은 우라카와 가즈야 편, 박호원 외 역(2017), 『그림엽서로 보는 근대 조선』 1~7, 민속원; 부산박물관 편(2009),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 풍경』 1~8, 민속원.
 - 3 권행가(2001), 「일제시대 우편엽서에 나타난 기생 이미지」, 『미술사논단』 12, 한국미술연구회, pp. 83-103; 고종 관련 사진엽서에 대해서는 권행가(2015), 『이미지와 권력: 고종의 초상과 이미지의 정치학』, 돌베개.
 - 4 권혁희(2003), 「일제시대 사진엽서에 나타난 재현의 정치학」, 『한국문화인류학』 36-1, 한국문화인류학회, pp. 187-217; 권혁희(2005),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 5 이경민(2008), 『경성, 사진에 박히다』, 산책자.

각장치이자 미디어인 사진엽서에 내재된 식민주의 이데올로기를 구체적 이미지 속에서 분석하고 사회적 현실과 담론적 양상들을 맥락화하여 비판하는 탈식민주의적 연구다.

이러한 연구의 계보 상에서 이 책은 가장 종합적이고 밀도 높은 최신의 연구성과로 자리 잡는다. 저자는 지난 10여 년 간 다양한 사진엽서에 대한 8편의 논문을 산출해 왔으며, 더하여 새로 집필된 많은 장절들을 종합하여 765페이지의 대작을 일제 사진엽서의 분석에 헌정했다. 게다가 그간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엽서 《신라고적전설》과 《조선군출동장사위문 봉합엽서 및 그림엽서》 등을 아낌없이 실어 두었다. 이 책은 선행연구에서 정립한 탈식민주의적 관점과 개별 엽서의 구체적 이미지를 분석하는 방법이 이어가 되, 다양한 종류의 사진엽서를 섭렵하고 치밀하게 분석, 종합한 점에서 일제 사진엽서 연구의 독보적인 저서로서 앞으로 오랫동안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견된다.

3. 제국이 구성한 조선의 탈식민주의적 해체-책의 내용과 구성, 방법과 관점

3.1. 내용과 구성

이 책은 모두 11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제가 발행한 사진엽서들은 저자가 오래 탐색해 온 분석의 갈래들을 따라서 관광지, 인물, 전쟁 선전, 조선말 학습으로 나뉘었다. 경성, 평양, 금강산, 경주라는 관광 장소를 담은 엽서들이 4~7장을 차지하고, 조선인 부인, 기생, 조선인 남성의 인물 엽서가 8~10장에 소개되며, 마지막으로 대동아전쟁의 선전 엽서가 11장에서 마무리를 한다. 책의 앞머리에는 조선어 학습과 일본어 시가(詩歌)를 담은 사진엽서를 위해 2~3장이 마련되었고, 호화로운 조선신궁 사진집 『은

뢰』(恩賴)가 첫 장에 소개되었다.

저자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사진엽서들은, 조선을 찾은 관광객이자 지배자인 일본인들에게 경영하는 영토의 아름다운 풍경과 통치하는 인간의 흥미로운 군상들을 소개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관광상품들이다. 이를 품위 있게 펼쳐내는 11개 주제의 장들은, 제국의 통치와 자본이 촘촘하게 선택, 채집, 편집하여 식민주의 이념으로 굴절, 변형시킨 조선의 거대한 상업용 아케이드이자, 공포에서 우쭐함까지, 회한과 비애에서 흥분과 도취까지 다채로운 정서를 롤러코스터처럼 체험하게 만드는 관광 미학의 전시장이다.

저자는 이 전시장을 중흥으로 누비면서, 사진엽서에 새겨진 식민주의의 시선과 이념, 그리고 심층적으로 작용했던 욕망과 충동을 드러낸다. 이를 위해 엽서의 이미지와 언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를 제국의 통치술, 교육담론, 문예기획, 문화규율의 풍부한 실제 사례들과 다층적으로 교직시킬 뿐만 아니라, 조선인의 텍스트들과 대조, 충돌시킨다. 이 촘촘한 연결 짓기의 작업은 저자의 유려한 글쓰기를 경유하여 학술적 품위와 지적 섬세함을 획득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사진엽서로부터 거미줄처럼 뻗쳐 나와 조선을 엮어뒀던 폭넓은 식민주의의 사슬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게 된다. 식민주의의 이념과 욕망은 황민화와 군국주의의 대표적 소재인 조선신궁이나 대동아전쟁의 사진엽서에서는 부끄러울 만큼 노골적으로 표출되며, 간단한 조선어 대화나 말끔한 조선 부인의 일상을 소개하는 언뜻 보아 무심한 일상을 담은 엽서에서조차 은밀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난다.

첫 장에 소개되는 조선신궁 사진집 『은뢰』는 1937년에 나온 것이지만 서두에 배치되었다. 그것은 『은뢰』가 식민지 문화정치학의 핵심이자 종합편이라는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라는 이질적인 민족의 지배와 그 심미화의 의도를 전국에 설치된 298개소의 신사와 총진수였던 조선신궁의 사진첩만큼 냉철하게 제시하는 사물도 없을 것이다. 마지막 장에 제시한 대동아 전쟁엽서는 폭력적 제국주의 이념의 가장 첨예하고 직접적인

선전문물로서, 『은퇴』를 다룬 첫 장과 수미쌍관의 짝을 이룬다.

나머지 8개의 장은 조선에 관광을 온 일본인의 동선을 상상하며 따라가 볼 수 있다. 반도에 첫발을 내디딘 일본인은 간단한 조선인과의 대화를 배우고 싶지 않을까. 2장에서는 그를 위해 마련된 조선어 대화를 소개하는 엽서를 분석한다. 저자의 관점은 확고하다. 조선어 대화를 소개하는 엽서는 원주민의 낯선 언어를 후진적인 것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조선 경영을 위한 언어 및 풍속에 대한 학지적 포획의 시선도 내장하고 있다. 엽서의 내용은 생생하다. 예컨대 밤 한 되의 값을 흥정하는 일본 부인과 조선 상인 사이의 대화는 관광지 구매의 팁을 제공하는 듯하다. 그러나 엽서는 조선인의 상도덕에 대한 일본인의 의심을 대화의 내용에서, 일본의 부유함에 대한 우쭐한 자긍심을 조선 여성의 기위입은 저고리를 그린 삽화에서 드러내곤 야 만다(pp. 164-165). 따라서 관광 온 일본인이 조선어를 배우는 과정은 식민지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 일본문화의 우월감, 식민 지배의 정당함을 학습하거나 되새기는 과정이 된다.

3장에서는 짧은 서정적 시가가 엽서의 주인공이자 분석의 대상이다. 일본인의 시가를 필기체로 적어넣고 명승지와 풍속 사진, 아기자기한 삽화를 곁들인 《조선정시》(朝鮮情時)와 《국경정서》(國境情緒)는, 이국적 관광지인 조선의 여관에 몸을 맡기고 느낄 법한 감상을 자아낸다. 하지만 교양과 취미로 연동될 이 아련한 감상의 글귀와 이미지들은 이별의 소회와 이주의 정한을 변주하면서도, “일본에 의해 보호받고 계몽되어야 할 식민지 조선을 표상하는 미학적 심리적 기제로 줄곧 작동”한다.(p. 189) 또한 만주 접경 지대에서 체험될 법한 애수어린 연정을 담은 엽서에서 조선 여성은 수동적 기다림으로 일본 여성은 연애를 능동적으로 즐기는 존재로 구별함으로써, “제국은 식민지의 애육과 사랑마저 열등하며 불완전한 것으로 묘사했다.”(p. 206)

4장은 대표적인 엽서집 『경성백경』을 중심으로 경성의 사진엽서를 분석했다. 근대 연구자들에 친숙한 경성의 엽서 사진은 통치논리를 따라서 크

게 두 종류이다. 경성의 지배자들은 경성역이나 조선은행과 같은 신식 건물로 개발을 자랑하거나 경복궁이나 덕수궁 등 전락한 왕조의 궁궐을 포집해 지배의 기념물로 내세웠다. 그런데 양자 모두 엽서에 동반된 시구들은 뜻밖의 뿔랑콜리한 회한의 감정, 혹은 특정할 수 없는 아련한 서정들을 담고 있었다. 예컨대 “한강물 마르려 하고 가을경치 다해가니 모랫벌과 기러기 달빛에 비치는 황혼”으로 번역되는 이토 히로부미의 일본어 시구가 한강철교를 원근법적 사선 구도로 포착한 사진과 함께 실린 사례가 그것이다.

저자는 이 시구들의 심리적 작용을, 식민지적 점유의 확인과 더불어 식민지에 대한 심정적 거리두기로 독해한다. 말하자면, 일본어 시가의 서정성은 식민지라는 지리적 정체성을 드러낸 사진과 결합되는 순간 이 땅의 점유와 개발을 가져온 자국의 선진성에 대한 자부심을 불러일으킨다. 동시에 시정(詩情)은 지배받는 대상의 쇠퇴와 전락을 영탄하기에 그로부터 심정적 거리를 만들고 대상의 차별성(후진성)을 확인한다(pp. 247~250). 이렇게 이미지와 언어가 협조하여 만들어내는 거리두기와 차별화의 심리는 식민주의적 ‘고착성’을 특징으로 하며, 식민지에 대한 “심상지리를 확대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며 폭력적이다.”(p.240) 요컨대, 『경성백경』은 일제판 오리엔탈리즘이자 체제의 선전과 찬양의 프로파간다라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으며, 시와 이미지의 협조가 생산하는 식민주의적 정동으로 인해서 사진 엽서는 “우편제도에 편승한 공적 ‘빠라’로 간주될 수 있을 듯하다.”(p. 267)

5장은 평양을 다루었다. 평양의 지리지는 일본인의 역사를 따라 재구성되어, 임진왜란과 청일전쟁의 전승지가 주요 관광지로 채집된다. 저자는 『평양오십경』(平壤五十景)의 사진엽서를 하나하나 읽어가며 일본인의 시각으로 재편된 관광코스를 체험시킨다. 일본인 남성 관광객 A는 청일전쟁의 전적지인 평양성 현무문(玄武門)에서 시작하여, 단군조선론을 반박하여 강조한 기자조선의 기자릉을 경유하고, 대동문과 영명사를 거쳐, 리비도의 그것, ‘잇또’(it)의 섹슈얼리티를 맛볼 수 있는 평양기생과 조우한 뒤, 평양신사와 보병연대에 위치한 충혼탑을 찾아 황국신민의 정신을 고취하며 여행

을 마무리했다. 이 과정을 안내하고 기념하는 엽서를 평양 그대로의 기록으로 보는 것만큼 어리숙한 인식은 없다. 그것은 “일제의 시선과 욕망이 잘 투영된 만들어진 재현물”이기 때문이다(p. 295).

6장에서 다룬 민족의 영산, 금강산은 어떠한가. 관광엽서 『금강산소패(小唄)』와 『금강산백경(百景)』을 통해서, 일찍이 최남선이 민족신앙과 국민정신의 최고 대상으로 노래했던 금강산은, “관능과 비애의 이중공간”으로 탈바꿈된다. 『금강산소패』에서 금강산은 후지산의 남성성에 대조되어, 일본해를 바라보며 옷자락을 휘날리는 조선여성이나 남성 손님을 기다리며 머리를 매만지는 기생의 아련하고 비애 어린 이미지 및 시구와 결합되고 만다. 한편, 금강산에서 조선인의 삶, 역사, 전설을 지워 버린 『금강산백경』의 사진엽서는, 이곳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킨 제국의 업적과 자부심을 은연중에 내비친다. 그러나 ‘신금강’ 개발은 경관의 획일성을 가져왔고, 기차역을 필두로 들어찬 산장, 스키장, 여관, 음식점의 관광시설은 경성에서 발원한 고도화된 섹슈얼리티 탐닉의 문화를 이곳에서도 축소, 반복하도록 만들었다.

7장의 경주는 저자가 수집한 새로운 그림엽서 《신라고적전설》(新羅古蹟傳說)을 통해 일제 식민사관이 굴절시킨 경주의 이미지를 검토한다. 박혁거세와 김알지 설화가 엽서와 교과서에 실린 것은 진구(神功)황후의 고대사에 근거한 일선동조론의 시점에서 선택된 역사였다. 또한 엽서에 실린 김유신 관련 고사 두 편은, 임나일본부의 지배를 받았던 가야의 귀족 김유신과 신라 김춘추의 결속을 내선일체의 골간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이에 공명하는 조선인 저술들도 제시된다. 일제 말기, 가야마 미쓰로(香山光郎)로 개명한 이광수의 『원술의 출정』이나, 이시다 고조(石田耕造)로 개명한 최재서의 『때 마닌 꽃』, 『민족의 결혼』 또한 황민화 이념을 충실히 따른 사례들로 엽서의 역사관과 일치한다.

8장부터 10장에서 살펴본 것은 조선인 여성, 기생, 남성의 인물과 풍속 사진 엽서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조선 부인의 어느 하루 생활》(朝鮮婦人の

或る日の生活)과 《조선의 부인생활의 페이지》(朝鮮の婦人生活のページ)는 흔히 엽서들이 선호했던 기생이 아닌, 중산층 조선 부인의 일상을 담은 사진엽서다. 탁상시계가 가리키는 하루의 시간에 따라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지를 사진과 글귀로 소개한 사진엽서는, 흥미롭게도 일본식 스위트 홈의 이상적인 부인상을 조선 부인에게 투영하는 가상의 시각적 프레임이다. 이 굴절된 이미지는 실제의 삶의 모습이 아니며, 따라서 조선 여성의 일상적이고 고된 노동을 은폐하고 만다. 클리셰로 반복되는 풍속사진들 예컨대 널뛰기와 같은 전통적 놀이를 여가로 삼는 조선 여성의 모습은 “일제 상류층 여성의 찬란한 유희와 대조될수록 기껏해야 이국정취를 물씬 자아내거나 머잖아 사라질 부수적인 문화현상으로” 간주될 뿐이다(p. 476). 이들 사진엽서에서 조선 부인은 일본 부인의 삶을 모방한 가상 현실 속에서 거짓 재현되거나, 열등하고 낙후된 이국성으로 폄하된다. 또한 국가주의적 모성이데올로기로 결박되거나 아니면 은밀하게 섹슈얼리티를 향유하려는 일본인 가부장 남성의 시선 아래 노출될 위험에 처한다.

조선인 남성은 어떠한가. 이들은 개성을 드러내는 개별적 주체가 아니라 일본인의 상상 안에서 구성되는, 저개발된 집단적 조선인으로 전형화된다. 선택된 이미지는 많은 것들을 배제한다. 조선 남성은 톱질하기, 채빙하기, 나룻배몰기, 무팔기, 지게지기, 빙상낚시하기 등 전근대적이고 낙후된 노동의 행위 속에서 포착될 뿐이다. 이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한 전근대적 습속이나 봉건시대의 유물”로 그려진 조선인 남성의 행위는, 일제의 “식민주의적 개조와 재편의 욕망”을 합리화하는 데 봉사한다(p. 587, p. 609).

3.2. 방법과 관점

이렇게 일제 사진엽서를 모두 11개의 장으로 나누어 풍부하게 살펴본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포괄하는 자료의 압도적 다양함과 분석 층위의 다면성이다. 이 책의 독자라면, 근대의 시공간으로 이끄는 방대한 시각자료와

문헌자료의 소개와 인용에서 눈을 뗄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생의 사진엽서를 다루는 8장을 보자. 이 장은 엽서 이외의 대중매체 시각자료까지 두루 연계시킨 결과 다면경의 중층 시점에서 주제를 살펴보게 한다. 시각자료로는 새장 속에 갇힌 기생의 사진을 표지로 내건 잡지 『장한』(長恨), 『조선일보』와 『매일신보』의 기사와 광고, 조선물산공진회 기념 엽서, 조선박람회 홍보엽서, 『조선만화』, ‘잇또(it)의 경성’ 광고, 일본잡지 『아리랑』에 실린 「아리랑 만화」, 『조선미인보감』 등이 제시된다.

그것만이 아니다. 풍부한 문학적 자료들도 각색의 천조각을 이어 아름다운 조각보를 만드는 장인과 같은 필치로 두루 꿰어진다. 예를 들어 이상의 소설 『날개』, 대중소설 『강명화 실기』, 이상협의 통속소설 『눈물』, 이광수의 『무정』, 『곤자키야사』(金色夜叉)와 『장한몽』, 백석과 김유정의 기생과의 로맨스, 그를 소재로 한 소설들이 제시되며, 장르를 달리하여 이화자의 대중가요 ‘화류춘몽’과 기생을 다룬 영화 ‘해어화’까지 짚어진다.

가장 핵심적 자료인 기생 사진엽서만 해도 8종이다. 주요하게는 《기생 팔태》(妓生八態), 《기생-염자팔태》(妓生-艷姿八態), 《기생정서》(妓生情緒), 《조선의 기생》이 다루어지면서, 《조선정서》, 《아리랑 타령》, 《조선민요 아리랑》, 《아리랑 정서》에 편재한 이미지도 꼼꼼하게 종합된다. 이들 엽서에서 언어와 이미지는 서로 몸을 부비며 조선 기생에 가공의 얼굴을 부여한다. 엽서에 놓인 기생 사진과 아리랑 가요는 서로를 변질시키며, 식민지적 상황과 기생의 처지는 서로를 은유한다. 저자는 식민주의와 섹슈얼리티의 다채로운 결합태들을 추적하여, 기생의 사진엽서들이 때로 당당한 자율성, 순수한 서정성, 풋풋한 향토성의 함의를 매개하기도 하며, 때로 게이사와의 동질성을 묻어 내며 일선영화의 행로로 빠져버리는 지점까지 쫓아가, 지극히 다면적인 식민주의 문화정치학의 양상들을 폭로한다.

이렇듯 풍부한 텍스트와 분석을 산출시킨 존재, 기생은 근대의 고급과 대중문화 모두를 관통하는 조선인 여성의 삶의 현실이자 한 극단의 기호였지만, 제국의 창출한 식민지 상상계에서는 “식민권력의 팔루스가 언제라도

즐기며 소비할 수 있는 과잉으로 성애화된 대상”(p. 531)이다. 저자는 이러한 기생의 대상화를 두고 제국과 식민지 남성이 벌인 “공모와 결탁관계”의 혐의 또한 놓치지 않는다(p. 525).

저자는 이미지와 이미지를 촘촘히 교직하여 나갈 뿐 아니라, 이미지와 같이 놓였던 시가와 설명의 언어들을 면밀하게 분석한 점에서 독보적인 작업을 시도했다. 이것은 이미지만에 집중했던 기존의 사진엽서 연구와 구별되는 중요한 작업이다. 저자가 선택한 대부분의 엽서에는 짧은 일본의 시가가 적혀 있었다. 이 일본어들을 번역하여 촘촘하게 읽어 내는 과정은 시문학 연구자인 저자가 수행하는 분석의 핵심적 작업이다. 사진엽서에 실린 대중적 시가의 글귀들은 일본인 대중의 식민주의적 심상 지리를 세세하게 드러낸다. 이 언어들은 대부분은 필자나 출처를 알 수 없으며, 고급한 순문학이 아닌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문학이라 할만한 것들이다. 우편 미디어에 실려 산포된 덕분에, 유명작가의 시구보다도 대중적 접촉면이 넓었을 이 시가들은 제국이 식민지 경영을 위해 축조한 정동의 언어적 층위를 드러낸다. 여기에는 조선인의 대표적인 대중가요인 아리랑이 채집, 인용되어 있었다. 저자는 경성신사의 사진, 국경의 이별을 노래하는 기생의 이미지, 일본해를 동경하는 금강산의 사진과 결합된 아리랑을 제시하면서, 민족의 노래 아리랑이 어떻게 1920년대의 저항적 함의를 버리고 폐허, 비애, 영탄, 퇴폐의 수동적 정서의 기호로 굴절, 변형되어 갔는지도 짚어 냈다.

저자는 사진엽서의 시각적·언어적 텍스트들을 최대한 풍부하게 모집하여 총횡으로 교직해 넘과 동시에, 이 텍스트들을 둘러싼 미시적 콘텍스트들을 불러내어 해석의 다층적 프리즘을 관통시킨다. 이것은 관련된 문학, 교과서, 역사서술의 언어들을 끌어당겨 같이 엮어 넣는 과정이며 통치제도를 비롯한 식민지의 역사적 상황들을 환기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진엽서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이 저술이 수행하는 1차적인 독해라고 한다면, 이를 다시 탈식민주의적 사유의 관점으로 씹어 내는 분석과 종합의 2차적 독해가 이어진다. 이 과정을 따라서, 책은 이미지와 언어를

통해서 자연적인 것으로 현현하는 지배적 이데올로기와 그 안에 숨겨진 식민주의의 욕망과 충동을 드러내고 분석하는 작업을 부지런히 수행했다. 이것은 온갖 종류의 대중매체가 창출하는 자본주의 신화를 해체하려 했던 바르트적 신화학의 탈식민주의적 버전이며, 제국 가부장의 팔루스와 충동을 가시화하여 고발하는, 정신분석학의 반식민주의적 탐사이다. 이 책은 2000년대부터 근대 문학 연구자들이 몰두하여 성과가 집적되어 온 식민지 근대성 연구에, 탈식민주의적 비판의 칼을 대어 정교하게 조각해 낸 대중매체 이미지와 언어 연구의 꽃과도 같다.

4. 나가며: 탈주술의 셋김굿

이 책은 에필로그에서, 본문에서 미처 제시하지 못한 흥미로운 엽서들을 추가로 조명하면서, 이후에 보완되어야 할 연구과제와 아쉬운 지점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이를 다시 부연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이것은 후속 연구자들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분석한 조선을 대상으로 한 사진엽서들을 보고 있으면, 다른 식민지의 사진엽서는 어떠했을까 하는 궁금함이 일어난다. 대만이나 만주의 관광엽서는 어떤지, 또 일본 자신의 관광을 위한 문화정치학은 어떻게 구성되었을지에 대한 질문이 일어나는 것은, 이 책의 정교한 분석 방법과 관점들이 거기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학술적 호기심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떠오르는 또 다른 질문은, 이 책이 분석하는 식민주의적 욕망과 이념이, 수용이 아닌 제작의 과정에서 구성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을까하는 점이다. 사진엽서의 제작과정에서 편집의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었는지, 그 실상은 어떠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별도의 험난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답하기 위한 수고로운 자료 탐색과 끈질긴 지적 노동은 후속 연구자들에게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일제 사진엽서 연구의 한계와 과제에 대하여 저자가 에필

로그에서 언급한 바인, 소외된 것들의 환대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 한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자신의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이후의 사진엽서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 식민권력에 의해 소외된 ‘조선적인 것’들에게 다음과 같은 환대를 제공해야 한다. 그들이 원래의 말과 얼굴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들의 소외된 영혼과 삶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 제약된 삶 속에서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역동적 생명력을 발견하는 작업이 그것이다.”라는 의미 깊은 문장을 써 두었다. 이 문장은 식민권력이 생산한 표상물 연구과정에서 저자가 느꼈던 심정을 내어 놓은 것처럼 보였다. 이 한계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표상 독해의 다른 방법을 궁리하여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현실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표상 외부에는 무한한 현실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표상을 통해서 현현하므로, 한 표상의 한계는 다른 표상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엽서의 식민주의적 이념과 욕망이 포획한 ‘조선적인 것’의 진실, 역동하는 생명력과 진실한 정체성을 찾아야 함을 말했다. 그것은 한편으로, 식민주의적 이념과 욕망의 격자들이 구축하지는 못하는 빈틈, 즉 제국의 기획이 실패하여 누수가 일어나는 지점들을 텍스트로부터 가시화하는 방법으로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엽서에서 사진은 피지배자인 조선인을 대상화하면서도 시가의 정서는 평범한 일본인의 것이었다. 이 정서가 식민주의적 심성임은 불문가지이지만, 저자도 부분적으로 열어 보였던 바, 일본인 자신의 근대화의 울혈증이나 제국주의적 강박억압을 우회하여 약자인 조선에 대한 정서적 연계로 이끌어갈 가능성은 없었을까하는 질문은 남았다. 한편으로, 사진엽서의 철저히 패터화된 이미지와 언어를 넘어서려 했던, 조선인 자신의 대중적 언어와 이미지를 찾는 것도 가능성의 하나일 것이다. 이 책은 이미 근대 문학의 많은 정전들을 가져와 사진엽서의 식민주의적 시선과 충돌시켰다. 이에 더하여, 조선인 자신이 발행한 대안적 사진집 『경성백승』(동아일보사, 1929)과 같은 자료도 경성을 재전유하여 엽서의 식민주의적 시선을 반박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보잘것없는 대중매체인 사진엽서의 이미지와 언어의 관계에 면밀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지극히 섬세하고 유려한 문장으로 내장된 식민주의적 시선과 욕망을 살살이 분석하고 해체해 나갔다. 엽서의 언어와 이미지는 “서로의 얼굴과 몸을 부대끼며 주체와 타자의 정서와 의미를 더불어 강화하는 상호보완적 협업과 소통에 충실”했다. 이미지와 언어가 협업하여 구성해 낸 사진엽서의 조선은 철저히 식민주의 이념의 프리즘을 통과하여 굴절된 왜곡의 형상들이며, 충족되지 않는 욕망이자 텅 빈 기호인 제국의 팔루스가 제조하여 유통시킨 상상계의 거울 이미지와도 같았다. 제국의 이미지와 언어는 조선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직면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저자는 위대롭고 공허한 제국의 욕망을 분석하는 지적 노동을 시종일관 성실하고 수고롭게 밀고 나감으로써 근대 조선을 휘감았던 오래되고 낡은 주술을 벗겨내는 데 성공했다. 탈주술의 셋김굿처럼 독자를 이끌고 나아가는 글쓰기의 밀도와 강도는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하게 만든다. 이 책을 읽는 독자는 사진엽서의 흥미진진한 퍼레이드를 관람하면서 식민주의의 이념과 욕망을 종횡무진 포획하여 밝혀내는 풍요로운 지적 여정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행가(2001), 「일제시대 우편엽서에 나타난 기생 이미지」, 『미술사논단』 12, 한국미술연구소.
- 권행가(2015), 『이미지와 권력: 고종의 초상과 이미지의 정치학』, 돌베개.
- 권혁희(2005),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 권혁희(2003), 「일제시대 사진엽서에 나타난 재현의 정치학」, 『한국문화인류학』 36-1, 한국문화인류학회.
- 부산박물관 편(2009),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 풍경』 1~8, 민속원.
- 우라카와 가즈야 편, 박호원 외 역(2017), 『그림엽서로 보는 근대 조선』 1~7, 민속원.
- 이경민(2008), 『경성, 사진에 박히다』, 산책자.

鳥原学(2013), 『日本寫真史』(上), 中公新書, pp. 30-42.